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북한의 안보 위협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 이유다. 이해할 수 없다. 북한의 안보 위협이 최근 더 심해진 것 같지도 않고, 경제는 지난 10년간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다. 특검을 거부하면 북한이 개과천선하고, 어렵던 경제가 살아날까?

거부의 조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검 연장은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될 일이었다. 박 대통령의 회피로 인해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롯데와 SK 등 삼성을 제외한 재벌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못했다. 시간이 촉박한 탓에 우병우의 범죄도 밝혀지지 못했다. 국민의 70%

황교안의 ‘뽕 먹고 알 먹기’

가 특검 연장을 원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더구나 그는 검사 출신으로, 특검 연장이 필요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다. 하지만 황 대행은 특검 연장에 대한 의견을 물을 때마다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며칠 전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특검 연장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노인들이 잘되시도록 바람을 가지고 왔다”는 동문서답을 하기도 했다. 그가 연장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은 오래 전의 일이었으리라. 그럼에도 그가 진작 거부를 천명하지 않은 이유는 그 경우 자신에게 욕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서가 아닐까? 끝까지 버티다 마지막에 거부하면, 그만둬 욕을 덜 먹을 수 있으니 말이다.

황 대행에 대해 기억나는 몇 장면이 있다. 첫 번째는 2016년 11월, 박 대통령이 이상한 종교를 믿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묻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썰려보던 모습이다. 이재정 역시 지지 않고 눈을 부라려 둘 간의 눈싸움이 한동안 계속됐는데, 이재정이 범조계로 따지면 한참 후배이긴 해도 그가 국민의 대표로서 질문했다는 점에서 그의 썰려봄은 국민에 대한 도발로 보였다.

두 번째는 2016년 3월, 그가 부산행 기차를 타기 위해 차를 타고 서울역 플랫폼까지 진입했던 모습이다. 플랫폼에 서 있던 사람들은 “여기도 차가 들어올 수 있나?”며 놀랐는데, 종종 장애인에 받아야 할 대우를 두 발로 걷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그가 받았다는 점에서 명백한 갑질이었다.

세 번째는 2017년 2월,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특검이 청와대 진입을 저지당했을 때다. 특검은 황 대행에게 압수 수색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황 대행의 답변은 허용도 거절도 아닌, 답변을 문개는 것이었다. 나중에 국회에서 추궁을 받자 “법령상 판단은 청와대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 해야 한다”며 책임을 그들에게 돌렸다.

앞의 두 가지가 출세 가도를 달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갖게 된 특권 의식의 발로였다면, 세 번째 사건은 아직은 대통령인 박근혜의 미움을 사고 싶지도 않고, 국민의 비난도 받고 싶지 않은 황 대행의 ‘뽕 먹고 알 먹기’ 심리에서 나왔을 것이다.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이를 비겁하다고 정의한다면, 황 대행이야말로 비겁의 ‘끝판왕’이다.

그는 1983년 청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28년간 검찰에 몸담으며 승승장구를 거듭했다. 그 시절 공안검사로 출세하는 비결은 국가 권력에 철저히 순응하는 것이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중책을 떠맡았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바뀔 수가 없는 노릇이니, 그가 여전히 비겁하게 구는 것도 이해는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대행은 12.5%의 지지율로 3위를 달리고 있다. 1, 2위가 전부 더불어민주당인지라 황 대행은 보수 진영에서는 1위다. 그가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행동을 거듭한 것도 보수층의 지지를 잃지 않으려는 알팍한 속셈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하지만 정치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 일, 알팍한 권력과 자신의 지지층을 만족시키느라 민심을 외면한 그가 좋은 정치인이 될 확률은 없다. 물론 마땅한 후보가 없는 보수 진영을 감안할 때 황 대행이 보수 후보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운이 좋다면 대통령이 되는 것도 꼭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비겁한 대통령은 무능한 대통령에 버금가는, 국민들의 또 다른 불행이라는 것 말이다.

종교칼럼

목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보내는 편지



장현권
서정교회 담임목사

새봄이다. 탄핵심판의 시계는 새 역사를 기록할 것이다. 필자는 국회에서 탄핵 가결 후 2016년 12월14일 헌법재판관 9명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공개된 편지다. 요약해본다.

내가 이러려고 대한민국 국민이 됐습니까? 촛불 광장에서 외치는 민중들의 소리입니다. 꺼지지 않는 촛불심장으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님을 비롯한 이정미·김기수·이진성·김창중·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님께,

차가운 날씨입니다. 탄핵심판의 역사적인 소령 앞에서 주말도 반납하시고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재판관님들께 건강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역사는 전대미문의 혹독한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 사육에 눈먼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순국선열과 민

주열사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뿌리 채 흔들고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철저히 유린했습니다.

지금 광장에서 촛불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명예혁명중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은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제 촛불의 시선은 바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님을 비롯한 8명의 재판관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파면여부와 권한대행 체제의 유충기간 심판이 언제 정리되느냐에 국민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재판소가 응답할 때입니다.

탄핵 이후에도 꺼지지 않는 촛불. 그것도 100만 명이 넘는 촛불이 광장과 거리를 가득 매웠습니다. 소장님과 재판관님들께서 주지하시다시피 촛불의 힘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만 정지된 것뿐이지 아직도 대통령입니다. 촛불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범자들에 대한 처벌이 완전히 이뤄질 때까지 촛불은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촛불이 햇불이 되며 들불이 될 것 입니다. 현재의 조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눈치를 보지 말고 옳음과 그름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대통령의 헌법 위반 등 핵심판 심리하면 됩니다 봅니다.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면

안됩니다. 국민들의 정의 촛불을 보시고 양심을 가지고 헌법위반 사유만으로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해 농단한 헌법 위반 사항입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나라 헌법을 새롭게 읽어 보았습니다. 제4장 제1절 대통령 제69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해 다음의 선서를 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 합니다.”

몇 번이고 읽어 보고 또 읽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서 때 헌법을 준수한다고 약속한 것이 국민들에게 거짓말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서 수사할 특검이 밝혀야 할 내용만 봐도 거기에는 반 헌법적인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772억원 강제모금 관련 박근혜 대통령 제3차 뇌물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순실 국정농단 방조 및 검찰 수사 인사가입, 정운하 문건 검찰 부실 수사 의혹,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의혹, 주치의 허가 없는 약물 반입등 청와대 경호실 및 경호실장 조

사, 최태민과 박대통령 관계의혹 등. 최순실 최순득 자매등 수천억원대 불법 축재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도 나열 할 수 없는 반인도적 반인간적 반 민족적 행태들입니다.

박한철 소장님 그리고 재판관님! 신속한 심리와 판단을 해주시길 간곡하게 원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재판관님의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도 떠나야 합니다. 단 한 가지 대한민국의 헌법 앞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 그것이 전부입니다. 참 재판관이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지혜로운 판단이 절대 필요 합니다. 재판관님들, 국민의 분노와 저항의 촛불을 보십시오.

박 대통령이 ‘국민의 믿음이 상실’된 현실 하나만 가지고 중대성을 인정하시고 현명한 심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판관님들의 책임 있는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에는 현재가 응답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생각되는 성경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야모스 예언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나? 내가 바라는 것은 정의다. 큰 바다 같은 정의! 내가 바라는 것은 공평이다. 강 같은 공평! 이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것 전부다.”

기 고

무등산의 꿈



박영석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등산 천왕봉에서 해맞이 하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그런 바람은 이루지 못하고 종머리재에 머물고 말았다. 무등산 정상이 광주시민의 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육당 최남선은 무등산의 ‘정상 삼봉’(頂上三峯)을 이렇게 읊었다.

“오르고 또 오르며 높다 하지 아니키는 / 다 닫는 거기가 곧 하늘일 줄 여겼더니 / 구름은 발 아래엔마는 해가 위에 있더라 / / 퍼다 만 손바닥이 나주평야 한 뜰이오 /

빨아 넣은 허리띠가 영산강 흐름인데 / 저 앞에 두터비 집을 송광이라 하더라.” 무등산은 지도상 동경126°56′ -127°03′ , 북위 35°05′ -35°10′ 에 자리하고 있다. 소백산맥의 한줄기가 지리산에서 나와 곡성 통명산, 국사봉, 설산으로 이어지다가 광주에서 크게 꺾들거리며 일어선 것이 무등산이다.

동글고 두툽고 다습고 덕스러운 산, 그러면서도 지축으로부터 솟아나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입석, 서서는 광주시민의 곧은 기개이며 양심이다. 이성계의 왕명을 거역했다는 무등산신(無等山神)~. 예로부터 이 고장 불교신앙 중심지로서 도교와 성리학의 보급자리로서, 조선조 가사문학의 산실로서, 또 장렬했던 구국열사의 발자취가 역력한 역사의 보고로서 무등산은 우리마음의 양식이며 희망이며 빛을 뿜어내는 광주의 진산(鎭山)이다.

그동안 시민과 무등산 보호단체를 중심으로 무등산 정상이 시민의 품으로 돌

아와야 한다는 시민운동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서남부 대공방어 목적으로 1966년부터 설치된 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였다.

그러나 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5월 무등산을 등반하면서 방공포대 이전을 군장비 현대화사업과 병행해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후 무등산 정상개발 행사를 시행하면서 시민의 열망은 더욱 확산되었다. 2015년 12월 국방부는 광주시와 군부대 이전협약을 체결하고 이전 대상지가 확정되면 전격적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민선6기 운장현 시장은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을 시민합의에 의한 전향적 추진을 서두르고 있으나 해당지역 주민의 입장차이가 있는 만큼, 상호간 상생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에 놓여있다. 광주시는 무등산을 국내 여섯 번째 국가지질공원 인증획득에 이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서두르고 있다.

이달에 국제지질과학연합(IUGS)에서 서류심사를 마치고, 5월에는 유네스코 현장 평가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무등산 권역과 광주호 주변의 자연환경과 가사문학 등 향토관광 자원을 활용한 무등산 남도피아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담양, 화순 등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국비 37억을 확보했다. 이제 무등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광주미래를 약속해야 한다.

광주는 무등산 아래 있고 무등산은 광주에 있다. 무등산은 시민의 마음속에 있고 시민은 무등산을 꿈꾼다. 우리는 천왕봉에서 일출을 보며 노래했던 하연 시인의 ‘무등노래’를 같이 불러야 한다.

“여기 당신의 가슴에 귀를 세우면 / 은하 들려오는 내 조국의 비바람소리 / 고향쳐 부르면 구만리 통하는 / 아, 푸른 메아리여 / (중략~) / 사랑하는 어머니, 무등산이여.”

社說

갈 데까지 간 극우 세력의 협박과 선동

탄핵 반대 세력의 극단적인 주장과 선동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탄핵계 각국민총궐기운동본부는 야권 정치인들을 ‘중북’ ‘빨갱이’로 몰아붙이는가 하면 현재 탄핵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내전’ 등의 막말을 쏟아내며 재판부를 옥박지르는 모습을 보아 왔다. 거리에서는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 “군을 동원하라”는 주장을 펴는가 하면 현재 재판관 등에 대한 테러 위협을 서슴지 않는다.

어느 극우단체의 대표는 인터넷 방송에 나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 주소와 단골 미용실까지 공개했다. 이는 두 말 할 나위 없는 사생활 침해이자 비열한 테러 선동 행위다. 이 단체 대표는 얼마 전 박영수 특검의 집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시위를 주도하며 “이제 말로 하면 안 된다. 응징할 때가 왔다”고 연설한 적이 있는 인물이다. 이들 극우 인사들의 언행은 ‘표현의 자유’를 가장한 협박·공갈이

아닐 수 없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판을 뒤집어 보려는 세력과 이에 편승한 일부 극단주의자들. 증오 발언을 넘어 폭력과 양상마저 보이는 이들의 행동을 좌시해서는 곤란하다. 오로지 ‘박근혜 사수’를 외치는 집단의 광기화·파소화를 경계하고 단속해야 한다.

이번 주말에도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가 동시에 열릴 것이다. 보수 언론은 또 국론 분열을 핑계 삼아 양비론을 펼치겠지만 두 집회를 어찌 똑같이 취급할 수 있나. 80% 안팎의 국민은 변함없이 탄핵을 지지하고 있고 촛불집회는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탄핵되면 아스팔트에 피를 흘리는 정도를 넘어 어마어마한 참극을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는 ‘태극기 세력’의 행태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법 당국도 민주주의를 고관하고 파괴하는 반민주적 범죄에 대해서는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아물쩍 넘어갈 게 아니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광주 발전 앞당길 ‘양림동산의 꿈’ 주목된다

광주를 ‘관광객 1000만 명이 찾는 세계적 명소’로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한 민간단체가 활동을 시작해 주목된다. 지난 1월 창립한 ‘(사)양림동산의 꿈’이 최근 사업의 고갱이에 해당하는 ‘경제문화선교 관광자원화 조성계획(안)’을 내놓았다.

골자는 양림동 일대 기독교 유적, 근대문화유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추천 등을 아우른 문화·관광 벨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1조2800억 원으로 추산되며 오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은 역사문화길 조성, 광주 근대역사관 건립, 예술인촌 조성, 기독교성지 조성, 기독교·순교 루트 개발, 세계 제2의 예루살렘 성지화, 관광객 1000만 명 유치 환경조성 등 8대 과제로 나누어 추진된다. ‘양림동산의 꿈’ 관계자들은 각 정당 대선 후보자들에게 ‘경제문화선교 관광자원화 조성계

획’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양림동산의 꿈’ 프로젝트는 광주의 자산을 문화관광 상품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관광객을 불러 모아 광주 브랜드를 높이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자생적인 활동이어서 의미가 있다. 창립회원으로 1720명, 340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등 시민 열망이 결집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경제문화선교 관광자원화 조성계획’은 원로 주도로 추진되지만 광주시의 자치구 등이 힘을 보탠다면 가시적 성과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자치단체에서도 이 같은 사업을 추진했지만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화전당을 비롯한 제2의 예루살렘 성지화, 관광객 1000만 명 유치 환경조성 등 8대 과제로 나누어 추진된다. ‘양림동산의 꿈’ 관계자들은 각 정당 대선 후보자들에게 ‘경제문화선교 관광자원화 조성계

無 等 鼓

도박의 세계에서 전문 도박사인 ‘타짜’가 존재하는 것처럼 남의 그림을 베끼는 위작(僞作)의 세계에도 대가(大槓)가 있게 마련이다. 회화의 역사가 길고 스펙트럼도 다양한 서양에선 자신이 위작 화가임을 공개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대표적인 인사가 1900년대 중반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레나토 페레티다. 그는 지금까지도 널리 회자하는 ‘위작자들의 변명’을 내놓은 인물이기도 하다.

후기 인상파 화가 조르조 데 키리코의 작품 모사로 성공해 큰 돈을 벌어들인 페레티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

모사 화가

“저는 위조꾼이 아니라 모사 화가일 뿐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쓴 대본대로 대사를 되풀이하는 연기자와 같습

니다. 저는 원작자인 저를 전체 화가에 대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재단사가 정장 한 벌을 지으면서 단추 하나라도 헛되이 여기지 않듯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저는 피아니스트에게 주어지는 찬사를 똑같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 이야기는 위작의 세계에서 위작자 혹은 모사 화가가 자신을 변호하는

데 가장 널리 쓰이는 것 중의 하나다. 청중의 우리와 같은 기립 박수는 무대 위의 연주자들이 악보를 완벽하게 표현해 낼 때 터져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나도 박수를 받아야 한다”는 페레티의 주장은 옳은 것일까?

페레티는 교묘한 언변으로 핵심을 피해 갔지만, 사실은 궤변이었다. 악보와 그림의 차이는 자명했다. 악보는 누군가에게 연주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림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

해 그려진 것이라는 점을 사람들은 금방 꿰뚫어 봤다. 작곡가

의 제작 의도와 화가

의 제작 의도가 전혀 다른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위작 논란이 재가시지 않은 ‘미인도’를 오는 4월 일반에 공개키로 하면서 천경자 화백과 유족 측이 마찰을 빚고 있다. 검찰 조사에선 진품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막상 그 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화가는 “내가 그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작품이다. 모사 작품은 결코 진품이 될 수 없다. ‘미인도’를 서둘러 일반에 공개하려는 것은 혹시 ‘진품임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꾀수 아닐까?

/홍행기 사회1부장 redplane@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